

“국민 생명·민주주의 수호 책무 저버렸다”

제주도의회 4일 ‘비상계엄 비판’ 기자회견… “내란죄로 즉각 수사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6시간 만인 4일 오전 해제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제주에서도 '사퇴 촉구'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한 국헌 문란이자 내란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사퇴와 내란죄에 대한 즉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국회의 요구에 계엄을 해제했어도 불법적 계엄 선포에 대해선 철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 의장은 “위헌 불법 계엄은 대한민국이 악순환을 끊어내고 정상



제주도의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생명과 민주주의 수호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주도민을 향해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제주도의회 같은 당 소속 의원들

대표해 입장을 발표한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 생명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책무를 저버렸다”며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송 원내대표는 “12월 3일 밤 10

시23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소총을 든 무장병력의 국회 난입, 서울 도심에서 장갑차와 헬기의 동원은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 의장을 포함해 도의원 전체 45명 중 절반 이상인 25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 교육의원 등이 함께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중앙당 입장 등을 확인하며 의견 표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은기자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연기

도의회 “10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첫날 상정”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처리도 늦어지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4일 오전 의원 전체회의를 열어 같은 날 오후 2시 예정됐던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이상봉 의장과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이날 자정쯤 도의회에 모여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본회의 개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소집된 의원 전체회의에선 본회의를 연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도의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이번 회기(제433회 회기)는 자동 폐회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은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7일간 열리는 ‘제434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 이를 상정하기로 했다. 이전 회기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모두 86건의 안건

이 이날 한 번에 다뤄진다. 제주도의회의 예산 심사는 계속된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3일 계수조정을 거쳐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지만, 제주도의 예산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예산 조정 규모를 놓고 제주도 집행부와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이다. 이에 예결위는 4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계수조정을 이어 가기로 했지만,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이날 예정됐던 회의는 잠정 연기된 상태다. 한편 제주도는 7조5783억원, 도교육청은 1조5973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 심사를 받았다. 이 중에 현재 예결위를 통과한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은 95억8500만원의 쓰임새가 조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건비 40억원,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 지원 사업 17억원 등이 감액됐으며 교육환경개선 12억원, 토지매입비 26억원, 특수교육 복지 지원 5억원 등이 증액됐다. 김재은기자 jieun@ihalla.com



정의당 제주도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보당 제주도당이 4일 정당연설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비판 성명·기자회견 봇물

“헌정 유린한 윤 대통령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제주시민사회단체는 “헌정 유린”이라며 일제히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제주민예총 등은 4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타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견에는 진보계열의 정의당 제주도당과 진보당 제주도당도 함께 했다.

이들은 “지난 밤 우리는 2024년 한국사회에서 가장 반민주적인 군과 경찰이 사적으로 동원되는 군사반란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국민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헌법적 질서를 파괴한 헌법 유린”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꽃자왈 등 도내 20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날 성명을 발표해 윤 대통령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며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계엄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하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단체인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은 내란죄를 저지른 현행범으로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공항 반대 단체인 제주제2공항항쟁저지비상도민회의는 윤 대통령 퇴진과 함께 제2공항 건설 중단도 촉구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내란 세력이 추진한 제2공항은 결과적으로 원천 무효일 수 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직능단체에서도 비판 성명이 잇따랐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에 대한 저항으로 위헌, 위법이 명백하다”며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으며, 제주도기자협회는 “계엄 시도는 제주 4·3 당시의 공포를 떠올리게 한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 대통령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민·김재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는 쿠데타”

제주지역 정가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에 제주지역 정가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불법성을 강조하며 이를 “쿠데타”로 규정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4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그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해제해도 해도 불법 계엄은 응시받을 수 없고,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도 사라지는 게 아니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원외 인사가 중심이 된 더민주제주혁신회의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을 “헌법을 유린한 피의자”로 지칭하며 비판 수위를 올렸다. 그러면

서 “피의자 윤석열은 포고령을 통해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막으려 했다”며 수사기관의 체포와 국회의 탄핵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에 반대하며 ‘정치검찰 해체’를 주장해 온 소나무당 제주도당도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을 무시한 윤 대통령의 내란 쿠데타”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제 국민은 대한민국 품격을 짓밟은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반란 일당을 법 앞에 세울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제주녹색당은 이날 긴급 입장문을 통해 “녹색당을 비롯한 노동당, 정의당 등 진보3당 대표자들이 오늘(4일) 서울중앙시장에 윤석열 대통령에 내란죄의 책임을 묻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김재은기자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쿨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 고정판 + 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